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에게 보내는 2024년 연례 메시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께

기후 변화, 분쟁, 빈부 격차, 사회경제적 및 지정학적 변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술적, 정치 및 경제적 메가 트렌드가 더해져 지구촌 사회에 복잡성, 불확실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많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혹은 대처하지 않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민간 부문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국제, 권역별, 지역별 모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생활 임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범분야적 문제 해결 방법과 돌파구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과 문제 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큰 규모와 범위로 빠르게 움직여야 현재 대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5년 전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은 민간 부문에서 글로벌한 결속을 맺어 세계 시장이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글로벌콤팩트는 그때부터 꾸준히 성장해 지금은 20,0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성장과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젠다 형성

2023년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이행의 중간 지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폭넓게 알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기업, 정부, 시민 사회, 유엔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더 현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 전반에서 민간 활동을 배로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영역인 성평등, 기후 행동, 생활 임금, 금융 및 투자, 수자원 회복탄력성의 다섯 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2030년까지 7년간 전체 회원사가 함께 이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중요 문제 해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실현하는 것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기조로 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내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회원사는 핵심 모임을 통해 이 같은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재정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가치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12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세계 인권 선언 발표 이래 지난 75년 간을 반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앞으로도 기업이 인권 보호 및 실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서는 재생에너지, 적응, 자원과 관련한 명확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정책 입안자를 연결해 기후 행동 계획을 재고하도록 하고, 이 행동 계획이 민간 부문의 투자 로드맵이 되도록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첫 민간 부문 포럼을 공동 주최하여 부패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190개 정부가 청정한 비즈니스 활동을 장려할 것을 약속하고, 500개 기업이 서명한 행동 촉구 서명문(Call-to-Action)에 따라 민간 부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

2024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선도하고, 배우고, 연결하고, 목소리를 내고, 보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 운영에 10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실천 가능한 지침을 제공해 책임성, 성과 달성, 포부, 전략적 동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원사가 이용할 수 있는 **Communication on Progress**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부자, 방콕, 코펜하겐, 두바이, 파나마시티에 권역별 허브를 설립해 회원사 및 지역 네트워크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연합 및 파트너십을 더 확장해 지역과 권역별로 규모 있게, 또 변화에 필요한 확장성 있게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9월에 개최되는 유엔 미래 정상회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다자간 체제를 제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정상회의 사전에, 그리고 회의 기간 동안에 민간 부문을 초대해 중요 논제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주의를 버리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힘을 쏟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20,000여 기업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민간 부문이 주도해 기회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사 모두 국제, 권역별, 지역별 플랫폼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 기여자로서 민간 부문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에너지, 기후, 식량 시스템, 교육, 디지털 연결성, 일자리의 핵심적인 전환에 민간 부문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권역별 우선 순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권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 성과가 있었던 지역을 되돌아보면,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아마존에서는 기업이 주도해 아마존 정글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리랑카에서는 직장 성차별을 철폐하고 스리랑카 여성들의 기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뜻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우크라이나 중소기업들의 사업 재건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통편을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부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10대 원칙을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운영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탄탄하게, 세계 경제는 탄력성 있게 만드는 것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2024년을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포부 있게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및 전무이사
사무총장